

부품·소재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개방형 혁신 중개서비스 모형 개발

이철원¹⁾

초록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은 조직 내부에 국한되어 있던 기술개발 활동을 기업 외부까지 확장하여 외부 기술지식과 내부 기술력을 함께 활용하는 혁신성과 극대화 전략을 의미한다. 개방형 혁신은 기술개발의 성공률이 높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이에 근거한 기술중개서비스 전문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나인시그마(NineSigma) 및 이노센티브(InnoCentive)이다. 그러나,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 기업은 매출액 및 R&D 투자가 일정규모 이상인 글로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수혜자로 한 개방형 혁신 서비스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부품·소재 중소기업을 주요 수요자로 한 개방형 혁신 기술중개 서비스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핵심 관건은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혁신의 장점을 부품·소재 중소기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조사하고, 그에 근거하여 개방형 혁신 중개서비스 모형에 포함된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 내용을 구조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개방형 기술혁신체제의 정의와 동향 검토 (2) 국내외 개방형 기술혁신의 사례 조사 (3) 부품·소재기업 대상의 개방형 기술혁신체제 도입 필요성·타당성 검토 (4) 부품·소재산업 개방형 기술혁신 모델 개발 (5) 국내 부품·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 정책과제 검토

※ 본 논문은 당일 배포함

1) (주)날리저웍스